

#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하 정(河 靜)\*

홍지영(洪芝英)\*\*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몰입의 영향을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준비행동 척도, 진로결정몰입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서울과 지방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66명(남=140, 여=326)의 자료가 수집되어 분석되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구성하여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하였고 최적의 모형에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결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몰입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직접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몰입을 높임으로써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진로결정몰입,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 전주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안양대학교 교수

## I.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배경

개인의 삶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과업으로서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학생은 학교교육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시기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안목을 넓혀나가며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려야한다. 더구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진로 발달 및 진로 준비는 대학생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발달적 맥락 속에서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선택 문제는 다른 어느 시기 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Guay, Billette, & Marchand, 2006), 가장 큰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다(김민정, 김봉환, 2007). 뿐 만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라는 사회 문제에 따른 취업기회의 감소 등은 대학생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진로준비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진로상담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학문적으로도 대학생의 진로준비 및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 진로결정수준은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진학, 취업 등 미래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2). 최근의 진로미결정연구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원인으로 구성된 진로미결정의 하위유형을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Gati, Krausz, & Osipow, 1996; Lucas, 1997), 진로를 결정한 이들 중에도 자신의 결정에 불만족감을 느끼거나 진로준비행동이 부족한 집단이 나타난다는 점 등(Wanberg, & Muchinsky, 1992; 김봉환, 김계현, 1997)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주목하고 개입하려는 연구와 시도들이라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진로의사결정(고향자, 1992), 자아정체성(박정희, 이은희, 2008), 진로장벽(김은영, 2001; 손은령, 손진희 2005; Lent, Brown, Brenner, Chopra, Davis, Talleyrand, & Suthakaran, 2001), 진로성취목표(김경욱, 2009) 등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왔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태도, 인지적인 변인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로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개인행동 변인을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견해도 있다(김봉환, 김계현, 1997).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 태도적인 부분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관심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진로상담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입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등의 구체적인 진로준비행동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

정을 위해서 수행해야하는 행동 즉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진로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활동을 말하며, 혹은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을 포함하기도 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진로장벽(김선중,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선중, 2005; 김수리, 2004), 성취동기(조지혜, 2007), 진로성취목표(김경욱, 2009)와의 관계가 탐색되었다.

김봉환, 김계현(199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때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행동과 인지의 양측을 고려하도록 하여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대학생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더라도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경우와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더라도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봉환, 김계현 1997). 그러나 기존연구들에서 이 두 개의 변인 각각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이상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없으며, 다만 몇몇 연구에서 진로결정변인이 진로행동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들이 있으나(손은령, 손진희, 2005; 안권순, 한건한, 2002) 이는 진로준비행동을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변인으로 보았으며,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이전부터 시작되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임은미, 2011; Bansbergs & Sklare, 1986)에서 막연히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며 분주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도리어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두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나아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어떤 매개변인이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내담자를 상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진로연구에서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효능감 변인(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이희정, 김금미, 2010; 정승현, 김금미, 2010)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진로성취목표(김경욱, 2009), 의사결정(어윤경, 2010), 불안(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등의 연구가 소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과 함께 개인 심리내적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몰입을 주목하였다. 진로이론가들은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한 후에 필연적으로 경험되는 불안감, 의심, 공포 등을 극복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이 완수되어야 하는데,

특히 진로결정몰입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Marcia, 1993). 또한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려는 후기 청소년시기에 진로결정 몰입은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되어 왔다(Erikson, 1968; Harren, 1979; Jepson, 1984; Super, 1957). 여기서 진로결정몰입(commitment to a career choice)이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과정을 의미한다(Blau, 1988; Jordaan & Heyde, 1979; Super, 1957). 즉 진로 선택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심, 가능한 장애물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Blustein, Ellis, & Devenis, 1989). 진로결정몰입은 진로결정 몰두 또는 진로결정 전념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진로결정에 몰입하여 매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도 몰입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몰입 이전 단계(uncommitted phase)에 있는 사람은 주변상황이나 경험 등에 쉽게 영향을 받아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를 계속해서 바꾸게 된다(Blustein, 1988). 몰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실제로 선택할 때도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직업생활을 해나가며, 반면 진로결정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겪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lustein, 1988; Harren, 1979; Philips & Pazierna, 1988). 따라서 Blustein 등(1989)은 진로결정몰입 과정은 몰입 이전단계에서부터 높은 몰입 단계까지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연속적인 발달과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진로결정몰입이 발달된 수준에 따라서 진로결정의 내용과 수준이 가변적일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몰입을 살펴 본 연구는 없어서 진로준비행동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진로결정 몰입관련 연구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진로탐색행동(career exploration behavior)이란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면 진로준비행동은 이러한 진로탐색행동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진로목표를 위해 교재나 기자재 등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과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한 일들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진로탐색행동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는 행동과 그 직업행동에의 몰입을 나타내는 진로발달과정의 선행조건이다(Harren, 1979; Super, 1953). Marcia(1966)는 진로정체감 개념에서 진로탐색 이후 이루어진 진로결정 몰입의 긍정성을 진로정체감 성취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체감 성취 상태는 탐색기간을 거친 후 특정 진로 목표에 몰입하고 이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긍정적인 단계를 뜻한다. 국내연구에서도 환경과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김지근, 이기학, 2011). 이외에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김순미, 이현림, 2008),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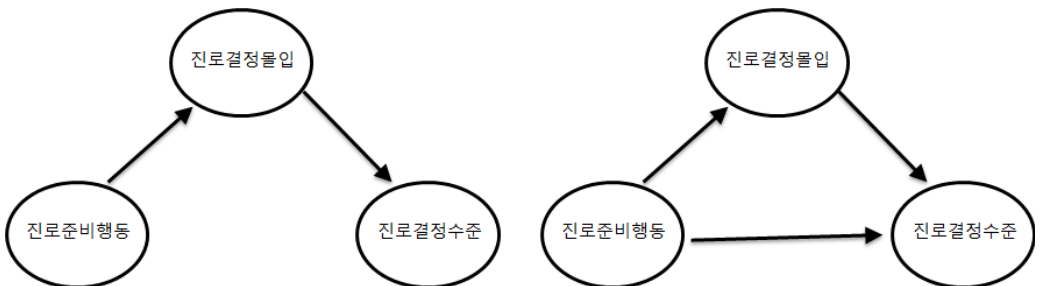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진로결정몰입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몰입과 진로결정과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전공 수업에 대한 몰입 경험이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태정, 2003), 전공수업 몰입경험이 진로태도 성숙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신맹자, 2010). 이러한 연구들은 진로와 관련된 몰입경험이 직업 및 진로 결정 등 진로관련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몰입의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 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진로결정 몰입변인과 행동적 차원을 고려한 진로준비행동변인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는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 몰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나아가 진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구체적인 개입 전략에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연구 결과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은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진로준비행동이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진로결정몰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몰입이 완전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완전매개)과 대안모형(부분매개)

## II. 방법

###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도, 전북 지역 7개 대학에서 표집된 총 466명이며 남자는 140명(30.00%), 여자는 326(70.00%)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18세에서 27세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88명(18.90%), 2학년 137명(29.4%), 3학년 147명(31.5%), 그리고 4학년이 94명(20.2%)이었다. 전공별 분포를 보면 인문계열이 70명(15.00%), 사회계열이 207명(44.4%), 자연공학계열이 161명(26.00%), 예술계열이 41명(8.8%), 그리고 기타 27명(5.8%)였다. 설문지는 각 대학의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수업시간에 연구자 또는 담당 교수가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으며 즉석에서 회수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진로준비행동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준비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을 확신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와 같은 결정에 이를 때까지 수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면담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진로 혹은 직업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활동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 기술하도록 하고 기존 외국의 도구들을 참고하여 만든 20문항 중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복되거나 부적합한 문항 4개를 삭제한 후 총 16개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문항내용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나는 앞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진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미 구입한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기구 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응형식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봉환은 내적 일치도 계수를 .84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8이었다.

## 2)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몰입이라는 잠재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Blustein, Ellis와 Devenis(1989)가 개발한 진로결정몰입 검사(CCC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8문항으로 진로탐색 및 몰입(VECS: 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과 진로배제 경향(TTFS: Tendency to Foreclose Scale)의 2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수정(200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반응형식은 5점 Likert 척도이며 VECS를 역채점하여 변인간의 개념적 방향을 일치시켜서 사용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TTFS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폐쇄적이고 경직된 방법으로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내용은 '나의 능력과 재능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딱 맞는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직업에 열중하기가 힘들어서 원하는 전공이 자꾸만 바뀐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VECS는 .89였고 TTFS는 .72였다.

## 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반응형식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을 측정하는 2문항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미결정 수준을 측정하는 16문항, 자유응답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은 '나는 진로를 결정했으며 그 결정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나갈지를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을 당장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고자 자유응답 문항을 제외하고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미결정 수준을 재는 16문항은 역채점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향자(1992)의 번역본의 내적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이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그리고 내적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및 매개효과와 구조모형 분석 등은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비교하였다. 이

를 위해 먼저 각 척도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하여 문항꾸러미(item parcels)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든 이후에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는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TLI, CFI 그리고 RMSEA 등을 고려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08이면 보통의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된다. 이에 비하여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또는 .95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모형비교를 위해서 내재된 모형의 경우에 사용하는 적합도 지수비교와  $\chi^2$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배병렬, 2007). 검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김진호, 홍세희와 추병대(2007)의 권유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III. 결과

#### 1. 예비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예비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을 분석하였다. <표 1>에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3변인 중 2변인의 모든 관계 즉,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몰입,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몰입과 진로결정수준 각각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 $r = .41 \sim .75, p < .001$ )이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i>M</i>	<i>SD</i>
1	진로준비행동	1	.41***	.45***	2.48	.55
2	진로결정몰입		1	.75***	3.09	.61
3	진로결정수준			1	2.72	.58

\* $p < .05$ , \*\* $p < .01$ , \*\*\* $p < .001$

#### 2. 측정모형 검증

각 변수의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



항 꾸러미를 묶어서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표 2>에서 1, 2, 3, 4는 진로준비행동을 4개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 5, 6, 7, 8, 9, 10은 진로결정몰입을 6개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 마지막 11, 12, 13, 14는 진로결정수준을 4개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이다. 이 문항 꾸러미들로 구성된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수준의 각 하위 측정변수들은 다수의 경우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0 \sim .80, p < .05 \sim p < .01$ ).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71, N=466)=137.898(7.878(p < .001))$ 이었으나 TLI=.973, CFI=.979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 RMSEA=.045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들은 .36-.83, 진로결정몰입의 하위요인들은 .37-.91,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들은 .61-.91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냈으며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따라서 본 연구에서 3개의 잠재변수를 14개의 측정변수로 측정하는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2> 측정변수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54**	1												
3	.38**	.27**	1											
4	.33**	.31**	.10*	1										
5	.50**	.45**	.30**	.14**	1									
6	.42**	.37**	.22**	.08	.71**	1								
7	.26**	.26**	.17**	.03	.64**	.58**	1							
8	.22**	.21**	.00	.06	.34**	.32**	.28**	1						
9	.23**	.19**	.20**	.00	.37**	.31**	.29**	.12**	1					
10	.17**	.19**	.11*	.05	.34**	.29**	.28**	.17**	.73**	1				
11	.51**	.42**	.27**	.14**	.79**	.66**	.55**	.34**	.37**	.31**	1			
12	.48**	.41**	.26**	.10*	.76**	.65**	.57**	.32**	.30**	.26**	.80**	1		
13	.32**	.26**	.12*	.05	.54**	.53**	.47**	.27**	.26**	.25**	.54**	.67**	1	
14	.37**	.31**	.12**	.05	.52**	.44**	.39**	.36**	.25**	.21**	.54**	.55**	.46**	1
M	2.52	2.28	2.92	2.17	3.20	3.06	3.58	2.04	3.29	3.39	2.67	2.83	2.98	2.38
SD	.73	.87	.70	.84	.98	.83	.90	.73	.95	.80	.74	.71	.68	.64

1, 2, 3, 4는 진로준비행동을 4개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 5, 6, 7, 8, 9, 10은 진로결정몰입을 6개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 마지막 11, 12, 13, 14는 진로결정수준을 4개 문항꾸러미로 묶은 것이다.

\* $p < .05$ , \*\* $p < .01$ , \*\*\* $p < .001$

&lt;표 3&gt;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 정	변 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표준화 경로계수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1	1.00			.83***
	진로준비행동 2	.98	.08	12.28	.68***
	진로준비행동 3	.51	.06	8.36	.44***
	진로준비행동 4	.51	.07	7.00	.36***
진로결정몰입					
	진로몰입탐색 1	1.00			.92***
	진로몰입탐색 2	.72	.03	22.11	.78***
	진로몰입탐색 3	.69	.04	17.83	.70***
	진로몰입탐색 4	.32	.04	8.61	.39***
	진로배제경향 5	.43	.05	9.02	.41***
	진로배제경향 6	.33	.04	8.07	.37***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 1	1.00			.91***
	진로결정수준 2	.92	.03	27.80	.88***
	진로결정수준 3	.67	.04	15.02	.66***
	진로결정수준 4	.58	.04	15.05	.61***

\*\*\*  $p < .001$ 

### 3. 모형비교

본 연구에서 설정한 3변인의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대안모형을 검증한 결과, 두 모형 모두 TLI와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045와 .046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로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판정되고 이에 비하여 TLI, CFI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로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그러나 두 모형을 비교했을 때,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chi^2$ 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자유도 1의 차이에서  $\chi^2$ 의 차이값을 비교하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elta\chi^2(1)=4.03$ ). 따라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은 기각되어 연구모형이 더 좋은 모형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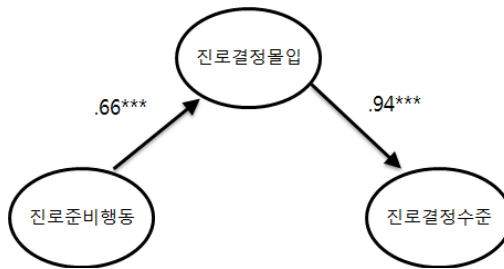
<표 4> 모형 간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chi^2$	$\Delta\chi^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41.91		72	.972	.978	.046
대안모형	137.88	4.03	71	.973	.979	.045

\*\*\*  $p < .001$

#### 4. 모수추정

모형비교 결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연구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이 완전매개모형의 모수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다.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표 5> 매개모형 계수값

준거변인	예언변인	모형	비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 제곱 (SMC)
진로결정몰입	진로준비 행동	연구모형	1.94	.29	.66***	6.68	.44
		대안모형	1.89	.29	.64***	6.60	.4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몰입	연구모형	.71	.03	.94***	25.91	.89
		대안모형	.66	.29	.88***	18.18	.88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 행동	연구모형	-	-	-	-	-
		대안모형	.20	.10	.09	1.97	-

\*\*\*  $p < .001$

<표 5>에 제시된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몰입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66, p<.001$ )을 미치며 진로결정몰입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94,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모형의 경우, 모수추정에서도 역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연구모형에서 변수들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절차(홍세희, 2001)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 모든 직접·간접 효과의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제시된 것과 같이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의 직접·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이르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앞의 모형검증에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몰입을 완전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연구모형의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준거변인	예언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결정몰입	진로준비행동	.66***	-	.66***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몰입	.94***	-	.94***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	.62***	.62***

\*\*\*  $p < .001$

##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몰입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매개효과 검증에

서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몰입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탐색행동이 진로결정 몰입 및 직업행동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김지근, 이기학, 2011; Harren, 1979; Super, 1953)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Marcia(1966)는 진로정체감 개념을 설명하면서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몰입의 두 가지 발달과업의 수준에 따라 성취, 폐쇄, 유예, 혼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중 정체감 성취상태를 진로탐색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충분한 몰입이 이루어진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결정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을 포함한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자기결정성 등의 인지 및 태도적인 면의 영향력을 검증해 왔다면(김순미, 이현림, 2008;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라는 행동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진로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들의 진로결정 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지, 태도적인 면의 개입 전략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구체적인 활동 등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지지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진로결정 몰입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도를 높혀 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말한다. 기존연구들에서 전공 수업에 대한 몰입, 진로전반에 대한 몰입경험이 진로 목표 제시 및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신맹자, 2010; 이태정, 2003). 이러한 결과는 몰입 경험이 진로 및 직업 결정 등에 주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진로결정 몰입은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 미래 및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진로 및 직업결정 뿐 아니라 직업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때, 진로결정 몰입 수준에 대한 점검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세 변인의 관계 모형 검증 결과,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이 지지되어 진로결정 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수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한다고 진로결정수준이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아져 보다 집중적인

탐색과 몰입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관심영역에 집중하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높은 몰입상태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임은미(2011)의 연구에서 진로 미결정이 높아진 학생들이 초점 없는 진로준비행동을 하면서 목적 없이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이로 인해 다시 진로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 것과 Bansbergs와 Sklare(1986)의 연구에서 초점 없는 진로준비행동이 도리어 진로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는 대부분 단편적인 진로및 직업 정보의 제공,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지원들로 진로준비행동을 격려하고 안내하는 내용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개입 전략으로 진로결정몰입 수준을 높힐 수 있는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교육 및 상담장면에서 진로몰입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불확실한 정서와 인지에 대한 탐색 및 문제해결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므로 진로결정 몰입에 대한 가치와 효과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진로결정 몰입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사용할 때, 스스로 진로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결정수준을 높힐 뿐 아니라 나아가 진로 및 직업선택, 진로 결정 이후의 만족감이나 직업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매개모형 효과 검증 이전에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에서 세 변인들 모두 상호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진로결정몰입 변수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이 두 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과 진로결정 몰입은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매개변인이 두 변수의 관계와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나아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많은 매개변수의 존재를 예견하게 해 주며 그 매개 변수들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것을 시사한다. 최근 이러한 매개변수에 관한 연구(김경옥, 2009; 김지근, 이기학, 2011; 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이희정, 김금미, 2010; 정승현, 김금미, 2010;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로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박고운, 이기학, 2007; 송현심, 홍혜영, 2010; 이희정, 김금미, 2010; 정승현, 김금미, 2010), 진로장벽(김종운, 박성실, 2012; 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기격려(김경기, 2009; 목경수, 구자경, 2012), 의사결정(김지현, 2009; 어윤경, 2010) 등 몇몇 변인 위주로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다

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인 심리내적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진로상담개입에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진로결정 몰입 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관관계 이상을 밝힌 연구가 없었다. 다만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4개 유형별 연구를 통해 두 개의 차원이 대학생의 진로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나(김지선, 2012), 두 변인 사이의 구체적인 매개변인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둘째, 진로결정 몰입 변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몰입이라는 매개변인을 확인하므로 진로준비행동과 함께 진로결정의 몰입수준을 높이는 것이 진로결정 및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이 높다고 모두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며, 불만족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집단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김봉환, 김계현, 1997; 김영화, 김계현, 2011; Jones, 1989; Wanberg & Muchinsky, 1992)과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안정된 심리상태와 효율적인 직업생활을 해나간다는 기존 국외 연구들(Blustein, 1988; Harren, 1979; Philips & Paziena, 1988) 고려할 때, 진로결정 몰입 요인은 진로결정수준 이후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의 한계로서 연구대상의 성별(남=140, 여=326) 및 학년과 학과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통해 얻은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 학년별 분석 등을 통한 모형검증을 통해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인 및 집단 특성을 밝히고, 그에 따라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준비행동의 변인은 진로결정전부터 진로결정이후 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방향성과 목표의식에 따라 그 종류를 나뉘어야 한다는 결과(최진영, 이광호, 2012)는 진로준비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진로상담 및 교육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그 결과 해석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결정 몰입이 실

제로 진로결정으로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 설계나 이미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 또는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진로결정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결정현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완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진로결정 몰입 변인은 진로탐색 및 몰입, 진로배제 경향이라는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각의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진로몰입 변인 이외에 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경기 (2009). 남녀대학생의 진로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격려의 매개 효과. **진로교육연구**, 22(3), 101-119.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경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김순미, 이현림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27-48.
- 김영화, 김계현 (201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결정문제,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자아정체감 성취와 조기완료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9(1), 169-182.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중운, 박성실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1(2), 23-43.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김지선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지현 (2009).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역할 갈등과 진로결정간 관계에서의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0(3), 239-256.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경영학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문헌 연구와 비판.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36(4), 897-923.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목경수, 구자경 (2012).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119-1139.
- 박고운, 이기학 (2007). 진로자율성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 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결정수준: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맹자 (2010). **대학생의 전공수업 몰입경험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석사학위 논문,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안권순, 한건환 (2002). 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3(2), 73-102.
- 어윤경 (2010). 진로성숙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실현의 관계: 의사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4(4), 1029-1046.
-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이지혜, 이재신, 류진숙 (2011). 가족탄력성, 자기결정성, 진로결정 몰입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4), 19-34.
- 이희정, 김금미 (2010).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 이태정 (2003). **몰입경험이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정승현, 김금미 (2010). 정서지능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739-753.
- 조지혜 (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최진영, 이광호 (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 하정희, 허보연, 강연우, 송언희 (2009). 내현적 자기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와 독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3), 683-701.
- 홍세희 (2000).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의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Bansberg, B., & Sklare, J. (1986). *The career decision diagnostic assessment*. Monterey, CA: CTB/McGraw- Hill.
- Blau, G, L.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84-297.
- Blustein, D. L. (1988). A canonical analysis of career choice crystallization and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94-203.
-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s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342-37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uay, S., Billette, V., & Marchand, A. (2006). Exploring the links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cial support: Process and potential research avenu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 327-338.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Jepson, D. A.(1984).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vocational behavior: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pp.178-215). New York: Willey.

- Jones, K. L.(1989). Measuring a three-dimensional construct of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77-486.
- Jordaan, J, p., & Heyde, M, B. (1979). *Vocational maturity during the high school year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74-483.
- Lucas, M. (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 Marcia, J. E. (1966). Develop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Counsel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Marcia, J. E. (1993). *The relational roots of identity*. In J. Kroger (Ed.), *Discussions on ego identit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sipow, S, H., Carney, C. G., Wint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imbus, OH: Marsthon Counsulting and Press.
- Phillips. S. D., & Paz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decision making* (pp.1 - 31). Hillsdale, NJ: Erlbaum.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논문접수 2012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2년 12월 10일 / 2차 심사 2013년 2월 7일 / 게재승인 2013년 3월 20일

\* 하 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과정' 등이 있다.

\* E-mail: hajung68@hanmail.net

\* 홍지영: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수퍼바이저 스타일이 수퍼비전 작업동맹과 수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 E-mail: myhjy@anyang.ac.kr

Abstract

##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University Students**

Ha, Jung\*

Hong, JiYoung\*\*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chosen from 466 university students(M=140, F=326) in Korea and they received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ir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Based on previous studies, one research model and one alternative model were examined the suitable explanation for data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this results, we found that the link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was fully mediated by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The implication of this result was discussed and the limitation and future direction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in the end.

Key word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level.

---

\* Professor, Jeonju University

\*\* Professor, Anyang University